

시력 교정술 종류와 선택

iFS 라식, 부작용 적고 각막손상 최소화

(펄토초레이저)

의료기술 가운데 라식만큼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예는 흔치 않다. 이제 주변에서도 라식수술을 받은 동료나 친지를 보는 일이 다반사다. 라식 수술이 대중화된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시력교정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시력교정 수술은 시술 후 드물지만 눈부심과 야간 빛 번짐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라식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를 한 후 수술을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1980년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시력교정술은 90년대 초반 일반 시력교정 이후 라식, 라섹, 펄토초레이저 라식 등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시력 교정수술을 할 경우는 전문의와 상담 후 자신의 눈 상태에 가장 적합한 시술을 선택해야 한다.

각막 얇거나 안압 높으면 i라식은 피해야 작은 눈·렌즈 장기사용자 라식보다 라섹

▷라식과 라섹=라식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시술되고 있으며, 시력 교정의 안정성 및 절편의 예측도가 가장 높은 레이저 시력교정 수술이다. 이 수술은 우선 미세각막 절개도를 이용해 각막 윗부분을 0.1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벗긴 절편을 만든다. 이후 그 절편 아래의 각막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해 각막을 원하는 만큼 깎고, 벗겨 놓았던 각막 윗부분을 다시 덮어주는 시력 교정술이다.

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칼날 대신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절편을 안전하게 만드는 라식수술이 개발됐고, 이때 각막절편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를 펄토초레이저(FS)라고 한다. 칼날 대신 펄토초(20만분의 1) 속도의 레이저로 기존 칼날로는 불가능한 정확하고 균일한 각막절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김재봉 밝은광주안과 원장이 근시 교정과 시력 교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20대 직장인을 상대로 아이라식을 하고 있다.

익시머레이저를 이용해 웨이브프론트시술을 할 때 불리는 시술이다. 현재 일반 라식 수술 후 1.0 이상의 나안시력까지 나오고 있지만, 시력교정 수술 후 드물게 눈부심과 야간 빛 번짐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시력교정수술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최근 이러한 라식의 단점을 보완한 라식이 iFS레이저를 이용한 '인트라라식, 아이라식'이다. 기존의 라식이 철제칼을 이용해 130~150μm의 두께로 각막을 절편했다면, 아이라식은 초고속 iFS레이저를 이용해 90~120μm의 보다 얇고 균일한 두께의 각막절편을 만들어 낸다.

아이라식은 근시 원시 난시 노인 등 교정을 필요로 하는 굴절 이상이 있는 눈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선천적으로 각막이 너무 얇거나 안압이 높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밝은광주안과에서 최근 도입한 iFS레이저는 각막절편 가장자리 경사각을 FS레이저 기준 중 최고의 각도인 150° 까지 제작할 수 있어 외부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3.5배 증가시켜, 라식의 빠른 회복과 라섹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또 iFS는 보다 낮은 에너지의 보다 작은 레이저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중 레이저로 인한 각막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 열로 인한 염증 등의 합병증 가능성을 줄여 수술 후 시력의 질, 선명도가 우수해진 장점이 있다.



전남대병원 2009년 103회 의료봉사

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영진)은 2009년 한해 동안 직원 1천913명이 모두 103회에 걸쳐 국내외 의료봉사,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무등산·광주전 자연보호 활동 등을 하였으며 95명의 불우한 환자께 치료비 1억1천200만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복재활원, 영아일시보호소, 나눔의 터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357명이 58회 방문해 노력봉사로 사랑을 전했다. '건강 광주'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운동 일환으로 무등산·광주전 등에서 32회에 걸쳐 1천404명이 참여해 자연보호활동을 펼쳤다. 또 직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전남대병원 학마를봉사회는 올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환자 95명에게 치료비 1억1천200만원을 지원했다. 김영진 병원장은 "2010년 개원 100주년을 맞게 되는 전남대병원은 지역사회에 보다 더 많은 나눔을 통해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전대병원 피아니스트 초청 음악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범희승)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을 초청해 오는 29일 오후 5시 1층 여미아트홀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연말을 맞아 환자 및 보호자,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6회 감사와 나눔으로의 초대'의 제1부를 장식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음악을 통한 한일 교류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 남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의 'Ein Orgel-Stuck fur eine Uhr KV. 608', 브람스의 'Walzer Op.39', 쇼팽의 '즉흥환상곡'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이 선보인다. 아름다운 선율을 보여줄 변영숙 교수는 빈 슈베르트 콘서바토리와 미국 베일리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전남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Junko Tsuchiya는 런던 국제콩쿠르 2위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고 특히 모차르트 연주로 유럽에서 정평이 나있는 연주자이다. 서울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초청 연주가 쇄도하고 있으며 현재는 빈 국립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래끼' 예방과 치료

다래끼는 눈꺼풀에 발생하는 안질환이다. 다래끼는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도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 다래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결이 우선이다. 평소 손에 윤수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눈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손을 자주 씻어야 하며, 눈을 만지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 다래끼는 크기가 크거나 눈이 심하게 아플 경우, 보기에 흉할 경우는 꽤는 시술을 해야 하지만 크기가 작으며 불편하지 않으면 기다려 보는 것이 낫다. 초기에 눈꺼풀에 항생제 안연고를 바르면 염증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다래끼는 저절로 나아지거나 고름이 터지면

항생제 치료 안될때 절개 시술 필요 같은 부위 반복엔 조직검사 받아야

서 터지지만 자연적으로 고름이 터지지 않을 경우에는 절개해 고름을 빼 내야 한다. 또한 다래끼는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한번 다래끼가 생기고 나면, 나는 부위에도 몸이 파곤하거나 저항력이 약해지면 또다시 다래끼가 생긴다. 드물지만 성인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잘 생길 수 있으며 같은 부위에 다래끼가 여러 번 생기는 경우는 눈꺼풀 피부에 생기는

악성종양이 의심되므로 조직검사를 해보는 것도 권장된다. 일단 다래끼가 생기면 다소 가렵더라도 손으로 비비지 말고 항생제 등 약물요법을 쓰지 말고 눈꺼풀을 깨끗이 씻고 눈물, 고름, 눈물막과 같은 파곤한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활성화해 재발할 수 있으므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눈을 자주 만지거나 먼지가 많은 곳 등

Portrait of a man (Jo Cheol-won) with text: '조철웅 원장' and '공기가 나쁜 곳에서 일하게 되면 다래끼가 감열될 위험이 높다. 특히 여성의 경우 눈 화상이 변했을 때에는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면봉 등으로 닦아내는 것이 위생적이다.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다래끼가 잘 생기는 것은 흠이나 먼지가 묻은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는 등 비위생적 습관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으로 세안을 철저히 하고 눈을 만지기 전에는 손을 씻는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조철웅 밝은광주안과 원장>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비만 아들 둔 부모 암 사망률 높다

비만 아들을 둔 부모는 심혈관질환, 당뇨병,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과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팀은 부모와 젊은 성인 아들 1만여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미국의 온라인 의학뉴스 전문지 헬스데이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체질량지수(BMI)가 표준

이하인 아들을 둔 부모는 호흡기질환이나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살린 사람은 심혈관질환, 당뇨병, 일부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고 지나치게 호리호리한 사람은 호흡기질환과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 의학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온라인 판(12월23일자)에 실렸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작은만남 큰 기쁨' (Small Meeting, Big Joy)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맛있는 세상' (Tasty World), 'IBT junior 학원' (IBT Junior Academy), '황실 좌훈방' (Royal Seonhwanbang), '고령영양간비빔' (Goryeong Nutrition Bibim), '몽근아구찜' (Monggeon Agujjim), '광주화랑' (Gwangju Hwarang), '네비게이션(세이프뷰클럽)' (Navigation (Safe View Club)), '노텔전산컴퓨터메니아' (Netel Computer Mania), '청림유황오리한마당' (Cheonglim Yellow Duck Market), '온누리칼국수' (Onnuri Kalguksu), '엄마손반찬' (Mom's Side Dishes), '온누리헤어샵' (Onnuri Hair Salon), '(주)아이티비전' (IT Vision Co.), '신화등상' (Shinwa Dongsang), 'PMA수화전문학원' (PMA Watercolor Academy), '연안부두' (Yeonan Budo), '파랑새유아아동도서' (Parangse Young Children's Bookstore), '청원모일(염주점)' (Cheongwon Moil (Yeomju Point)), '(주)허우연 남구 교육원' (Hwouyeon Namgu Education Center), '소양말(유동점)' (Soyangmal (Yudong Point)), '최가네너전복나뉘지' (Choi Gane Nereon Nabeonji), 'HBEnglishSchool' (HB English School), '하이스트왕수학교실' (Hairst Wangsu School Classroom), '삼운회 교통봉사대' (Samunhui Traffic Service Team), '연제 우리들의원' (Yenje Our People's Center), '휴피부&발관리' (Hyu Skin & Hair Management), '바디질휘트니스센터' (Body Quality Fitness Center), 'XG커피전문점' (XG Coffee Specialty Shop), '조아조아두마리치킨' (Joajoa Dumari Chicken), '잡 한우식육식당' (Jap Hanu Sikyuk Sikdang), '광주YWCA신협' (Gwangju YWCA Shinhyeop), '애가산업' (Aga Industry), '더치랜드드림전문점' (The Childe Land Dream Specialty Shop), '원기업' (Wongyeom), '신신예술의집' (Shinshin Art House), '상록부동산' (Sangnok Real Estate).